#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

## (마27:51b-56)

51b.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엑스트라는 임시적으로 아니면 일회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거리의 행인이라든지 또 많은 군중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을 때 군중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엑스트라입니다.
요즘 존재감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정말 존재감 제로이지요.
그 누가 지나가는 행인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도 존재감이 없다보니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엑스트라 중에 좀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입이 일자형으로 쭉 찢어진 남자예요,.
하도 인상 깊어서 그 얼굴을 기억했는데, 예를 들어 사극드라마라고 하면 분명히 포도청 군졸로 나왔었는데, 다음에 보면 주막집 평상에 앉아서 국밥을 먹는 보부상으로 나와요.
또 좀 지나다 보면 저자거리의 상인으로 나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주인공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서 곁가지로 꾸며놓기 위해서 갖다 놓은 배역들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역을 맡아서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영화 속 드라마 속 엑스트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사건이 주는 의미를 마태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부활 후에 도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 두 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도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드러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태가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사건과 연결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혼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마태만 기록한 것이겠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상적인 이야기라고 볼 필요가 없고 그렇게 봐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태는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고 마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과 연관 지어서 특별히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것이 첫째로, '식어버린 스테이크',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끈따끈한 70도로 덥혀져 있는 스테이크로 제공을 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으로 마음의 공복을 채우려하는 자가 없다.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저주가 사라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으로 마음의 빈 상태를 채울 수 있는 상태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의 식량으로 스테이크로 내놓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연관되는 의미로 '죽은 자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겠지요?
이들의 부활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힘을 없애버린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들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갖게 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도 아닙니다.
그냥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도 달라요.
주님은 부활해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활은 그런 부활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도 그렇고 전부 육체가 살아났을 뿐이고, 이들의 육체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상태로 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라고 얘기할 때, 나의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반하는 가장 무거운 존재감의 배역을 맡은 악역입니다.
악역을 담당하고 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내 인생이 종지부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내 육체의 죽음은 가장 무서운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 최고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렇게 존재감 최고의 악역이었던 죽음이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죽는다는 게 내 마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변화가 어찌 된 영문인지 자세히 한 번 살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육체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 죽음의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믿음이 성숙되어 이루어질 때, 이상한 것은 이 내 몸이 죽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죽으면 죽지 뭐!’

죽는다는 게 아침 한 끼 밥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늘 먹던 그 밥을 먹는 것,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인 그런 상태로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사실은 죽음 그 자체가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절대치는 십자가 이전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좀 현명한 지혜자들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동료들과 제자들이 그 죽음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부당한 재판을 받아 죽지 말고 도망가자고 하고 죽게 되었다고 불행해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자네들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장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자네들이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한테 증명할 수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

말의 요지가 이겁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장 행복한 사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는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공자도 제자 계로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태어남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죽음 그 자체가 본래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고, 두려워할 일이고 저승사자를 연상해야 되는 그런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두려운 일로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면서 진짜로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저주였습니다.
저주가 두려운 것이라는 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저주가 두렵습니까?
내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저주는 비어있는 내 마음에 채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채운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주란 무엇인가 하면 채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비어있는 이 상태를 마땅히 채울만한 것이 없는 상태가 저주이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사건을 앞에 두고 반응하시고, 그것을 접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주님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스테반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순절 강림 이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울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했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저주에 처하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아버지로만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주는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빠져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아버지가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신 사건, 이게 바로 저주받으신 사건이고 주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울부짖었던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저주 속에서 대안을 찾아냅니다.
주님은 마음 안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 한분뿐으로 딱 정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극렬한 두려움이었는데, 인간들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상실

하게 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에서 자식으로 채워 넣고, 아내나 남편으로 채워 넣고, 애인으로 채우고, 사업 잘해서 기뻐함으로 채우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채울만한 좋은 것들을 선별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마음에 채워 넣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육체로 만나고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에 채울 것이 없어진 상태가 두려움이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운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운 거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좋은 것들을 몸을 통해 만나는 것들로 정했기 때문에 이 몸이 없어지면 마음에 채울 것들이 사라지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몸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몸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는 몸을 통하여 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이제는 몸을 통해 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이 좋다고 여겨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끝난다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육체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로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육체의 영역과는 관계없이 채워질 때에 육체의 죽음은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고 두려워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매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육체로 접하게 되는 모든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고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하지 않습니다.

사업 잘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자식 잘 키워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고, 미모를 가꿔서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아버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육체와는 관계없는 영역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때 육체의 죽음은 이거 완전히 졸(卒)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죽음이 완전히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끝난 것뿐이지, 두려워할 일도 괴로워할 일도 슬퍼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서 성공하려고 안달이 났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사업으로 채우려고 했던 마음의 부분을 하나님아버지로 가득 채웠을 때, 사업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지요.
자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모둔 좋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마음의 빈 구석을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웠을 때 육체가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저주의 세계에 던져지시면서 저주가 나 개인에게서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세계로 던져졌을 때 이 육체의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게만 여겨졌던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죽어버린 것이고 죽음의 힘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하지 않고, 육체와는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천국과 천국에 계신 아버지로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죽은 사실을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동네에 모습을 드러낸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마태는 이 영적 의미를 보는 겁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도 무섭고 괴롭고 끔찍했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의미 제로가 돼버렸구나,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가 돼버렸구나,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는 엑스트라가 돼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인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부한 은총의 삶이 경험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육체가 죽는다는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덕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나 언제든지 내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함을 통하여 내 육체의 죽음이 존재감 제로의 엑스트라로 여겨지는 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은총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